차 례

제 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자!

이 판은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 총서판입니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투쟁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셔왔는가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걸출한 혁명의 수령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뿌리로 한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비범한 령군술과 독창적인 전법으로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이 땅우에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넓은 길을 펼쳐주신 민족의 구성이시며 온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정치의 원로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혁명업적으로 하여 우리 겨레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심오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성과 풍모를 깊이 학습하고 적극 따라배우는 것은 선군시대 우리 학생소년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더없이 큰 영예와 행복입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투쟁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모두가 선군혁명투사로 튼튼히 준비하며 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야 합니다.

제 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은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투사들을 낳은 력사에 찾아볼수 없는 혁명일가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과 할아버님, 할머님은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남달리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시였으며 대동강에 기여든 미제침략선 《셔먼》호의 격침과 《쉐난도아》호를 격퇴하는 싸움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이시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할머님이신 리보익선생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선생님께서는 아드님과 손자분들을 모두 나라를 찾기 위한 싸움에 내세우시고 그분들의 투쟁을 뒤받침해주시면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십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투쟁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어머님이신 강반석선생님은 우리 나라 혁명적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어머님이신 우리 나라 혁명적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선생님이십니다.

강반석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김형직선생님과 아드님의 혁명활동을 성심성의로 도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삼촌과 동생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견결히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들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삼촌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이십니다.

김형권선생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으시고 이끄신 혁명조직과 조선혁명군에 참가하시였으며 주체19(1930)년 여름에는 조선혁명군의 한 소조를 거느리시고 국내깊이에까지 나오시여 무장활동을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일제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생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선생님이십니다.

김철주선생님께서는 어린시절에는 새날소년동맹원으로, 청년시절에는 안투(안도)공청조직의 책임자로 대중속에서 정치공작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반일부대들을 쟁취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시였고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최후를 마치실 때까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굳세게 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과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도 나라를 찾기 위하여 굳세게 싸우신 불굴의 반일애국투사들이시였습니다.

만경대혁명일가는 이렇듯 대를 이어 모두가 침략자,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나서시여 모든것을 다 바쳐 용감히 싸우신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

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혁명적가정은 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위인적풍모가 싹트고 자라난 터전이였으며 주체의 혈통이 뿌리내린 혁명의 요람이였습니다.

제 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1)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나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동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

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쁜 놈들이며 식민지사회가 나쁜 사회라는 교양을 받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에게서 늘 아름다운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들의 자랑찬 투쟁력사와 그리고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은 나쁜 놈들이며 식민지사회가 나쁜 사회라는데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끝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손수 《자장가》도 지어 불러주시였으며 반일애국정신을 가지고 일제를 몰아내자면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에게 어려서부터 글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도록의 가사를 짚으면서)

그리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벌써 《**조선독립**》이라는 글자를 붓으로 쓰시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어머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어머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였

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해종일 밭일을 하시고 저녁이면 저녁대로 무명낳이와 바느질을 하시면서도 밤마다 아드님을 옆에 앉히시고 글공부를 시키시였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도록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군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동지들과 인민들의 두터운 신임과 믿음속에서 혁명투쟁을 벌리시는 아버님과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심중하고 원칙성이 강하신 어머님의 성품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시며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쓰라린 생활체험과 조국과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직접 목격하시는 과정에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을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양감옥에서 아버님을 만나보시며 일제를 때려부실 굳은 결의를 다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모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강동, 중강, 린쟝(림강), 바다오거우(팔도구), 푸쑹(무송) 등지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나라잃은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시며 일제를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아버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다니시며 계시던 집들인 봉화리살림집, 중강려인숙, 린쟝(림강)살림집, 푸쑹(무송) 살림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들의 영향밑에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좋은 품성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늘 어머님과 함께 밭으로 나가군 하시였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내리쪼이는 뙤약볕아래서 땀흘리며 김을 매시는 어머님을 도와 밭이랑의 큰 풀을 뽑기도 하시고 뽑은 풀을 한아름씩 안아다 밭최뚝에 무져놓기도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할아버님의 일손을 도와드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넋을 깊이 간직하시였고 로동을 사랑하고 웃어른들을 존경하시였습니다.

제 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교양을 받으시며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2)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아름다운 품성을 키워나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학습에 열중하시였으며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 공부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남달리 총명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벌써 4살 잡히시던 때부터 아버님에게서 우리 글을 배우시여 자체로 쓰고 읽으시였으며 5살때부터는 스스로 글의 뜻을 해득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봉화리에 계실 때 명신학교에서 울려나오는 아버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시였을뿐아니라 학생들의 글읽는 소리도 즐

겨들으시며 몸과 마음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시도 잘 읊으시였으며 연설도 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6살나시던 해에 아버님께서 써주신 연설문을 외우시여 마을사람들앞에서 연설하시였습니다.

일제놈들의 침략적본성과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인민들을 투쟁에로 부르는 어리신 대원수님의 랑랑한 목소리는 마을사람들의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원쑤를 미워하는 정신이 강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였으며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군함바위에서 군사놀이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감옥에서 아버님을 만나보신 후부터 아버님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동무들을 데리시고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군사놀이에 더욱 열중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1919)년 일제를 반대하는 3.1인민봉기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만경대인민들의 시위대렬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시며 보통문까지 걸어나오시였습니다.

이날 어리신 대원수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과 굴함없이 싸우는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모습과 사람들을 총칼로 무참히 죽이는 일제놈들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을 보시면서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반일의식을 키우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희생적인 투쟁정신과 영웅적기상을 가슴에 새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비밀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팔도구)에 계실 때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와 압록강을 넘나드시면서 비밀편지를 나르시였습니다. 또한 비밀모임을 가지실 때에는 망을 보아드리기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성품이 활달하시고 탐구심이 강하시였으며 동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무지개잡이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5(1916)년 여름 어느날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순화강에서 동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집우에 칠색무지개가 곱게 비낀 것을 보시게 되였습니다.

무지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보고싶어 집으로 달려가 들메나무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벌써 자리를 옮겨 만경봉소나무우에 걸려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만경봉에 있는 소나무우에 올라가보시니 무지개가 만경봉너머로 사라져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였습니다.

이날 저녁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지개를 놓쳐버린 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무지개가 자꾸만 자리를 옮기군 하는 그 《조화》에 대하여 아버님에게 물으시여 종내 그 리치를 아시고야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탐구심을 지니고계셨기에 축음기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비밀을 알아내려고 소리판도 깨여보시고 칼끝으로 공명판도 뜯어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을 옳은 길로 나가도록 타이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동무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였으며 동무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가꾸신 복숭아가 한창 익어가던 어느날에는 복숭아를 따자고 조르는 동무들을 타이르시고 다 익은 다음에야 크고 잘 익은 복숭아를 할아버님께 먼저 드리시고 동무들과 함께 나누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의 사적을 보여주는 만경대의 들메나무, 군함바위, 썰매바위, 씨름터 그리고 봉화리 군사놀이터, 중강승리터입니다.

제 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를 찾으실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나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력사에 길이 빛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열두살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나라의 글을

더 잘 배우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애국의 뜻을 키우기 위하여 혼자서 조국땅을 향하여 팔도구를 떠났습니다.》

○ 도록아래의 지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보여주는 로정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팔도구)소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하자면 제 나라를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대로 주체12(1923)년 3월 16일 바다오거우를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80여리의 눈길을 헤치시며 조국땅 월탄에 이르시여 하루밤을 주무시였습니다.

3월 17일에는 화평, 18일에는 흑수, 19일에는 직고개를 넘으시고 장강을 거쳐 강계에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20일 강계우편국에서 아버님께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전보를 치시고 21일 강계를 떠나 별하(성간)를 거쳐 22일에는 전천, 23일에는 고인, 24일에는 개고개(명문고개)를 넘으시여 청운에 이르시였습니다. 25일에는 희천, 26일에는 향산, 27일에는 구장, 28일에는 개천에 이르시였으며 29일 개천역에서 기차로 떠나 신안주를 거쳐 평양에 도착하시여 아버님께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전보를 치시고 고향 만경대에 이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만경대고향집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있어서 이 배움의 천리길은 참으로 멀고도 간고한 길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겪으시는 자신의 고달픔보다 더욱 마음아프고 괴로우신것은 일제에게 짓밟히고 뜯기우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시는것이였습니다.

깊은 산속에 점점이 보이는 화전민의 움막집들과 포승에 묶이워 끌려가는 무고한 인민들, 어디서나 보이는것은 수난속에 허덕이는 겨레의 모습이였고 들리는것은 인민들의 원한서린 한숨소리뿐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있어서 이 천리길은 조국을 알게 하고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나라찾을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덕학교시절에 계시던 칠골외가집과 공부하시던 책상이며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공부하시던 창덕학교와 교실입니다.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첫학기부터 모든 과목에 걸쳐 첫자리를 차지하시였으며 학교와 집에서는 물론 만경봉에 자주 오르시여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받은 일본어교과서에 《국어독본》

이라고 씌여진것을 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일본말책을 왜 국어책이라고 하는가고 하시며 《국어독본》을 《일어독본》으로 고쳐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학습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보통강의 토성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통강반의 토성랑을 비롯한 평양시내와 그 주변마을에 동무들과 함께 나가시여 인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일제놈들과 그와 한짝이 된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셔야만 모든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새세상을 세울수 있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격침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아래의 이 사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창덕학교시절의 혁명활동사적을 보여주는 칠골독서터, 칠골군사놀이터와 룡악산랭천터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창덕학교에서 애국의 큰뜻을 키우고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놈들에게 붙잡히시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받으시고 기어이 원쑤를 갚고야말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4(1925)년 1월 22일 만경대를 떠나 바다오거우를 향하여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습니다.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포평나루터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이 비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 《압록강의 노래》를 새긴 노래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바다오거우에 이르시여 그립던 어머님과 동생들을 만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일제경찰놈들에게 붙잡혀가시다가 놈들의 손에서 빠져나와 무사히 몸을 피하셨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야 마음을 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기는 놈들의 감시가 심하니 인차 떠나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날밤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바다오거우를 떠나 린쟝(림강)으로 가시였습니다.

그후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께서 혁명활동을 하고계시는 푸쑹(무송)으로 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푸쑹제1소학교에 들어가시여 나라를 찾을 큰뜻을 억세게 키워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시면서 학생들과 군중들속에 반일애국사상선전, 가창대와 연예공연, 계몽활동을 비롯한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시였습니다.

주체15(1926)년 6월 5일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시였습니다.

아버님을 잃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마음의 아픔은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그리고 두자루의 권총, 이 고귀한 혁명유산에서 커다란 힘을 얻으시였으며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조국광복을 위

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습니다.

제 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혁명적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청년학생들을 새 세대 공산주의자로 키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였습니다.

주체15(1926)년 6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으나 뒤떨어진 민족주의사상으로 일관된 교육내용이 마음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탐구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열심히 읽으시며 거

기에서 나오는 혁명의 원리들을 조선의 구체적현실과 결부시켜 깊이 연구하시였습니다.

이 과정에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시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참다운 새 세대 혁명가들을 키워야 한다고 인정하시고 이 사업을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속에서부터 시작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참다운 길이 탐구되고 핵심력량이 마련되자 우리 혁명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전위조직을 무으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화디엔(화전)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ㅌ. ㄷ》)을 무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ㅌ. ㄷ》결성모임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밝힌 투쟁강령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참다운 혁명조직의 첫 탄생이였으며 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의 참다운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여나가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ㅌ. ㄷ》를 조직지도하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출판물자료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 후 조직을 확대공고화하시고 그 활동범위를 넓혀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신 후 혁명활동을 더 크게 벌려나가시기 위하여 지린(길림)으로 자리를 옮기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무르익히시며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지린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선진사상을 더 깊이 연구하시는 한편 청년학생들속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지린육문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 비밀독서조를 무으시고 운영해나가시였습니다.

또한 독서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웅변대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진사상을 보급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새 세대 공산주의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줄기찬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2월 1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시였습니다.

주체16(1927)년 4월에는 지린에서 조선인지린소년회를 무으시였으며 주체16(1927)년 5월에는 조선인려길학

우회를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인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고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6(1927)년 8월 2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보다 대중적조직인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고 그 조직을 넓혀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른 청소년조직들도 내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공청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공청회의를 지도하시던 베이산(북산)공원의 야오왕(약왕)묘와 그안에 있는 지하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의 대중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주체16(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날》신문발간사업을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7(1928)년 1월 15일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을 창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와 반동군벌들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지린(길림)－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7(1928)년 여름 일제와 한짝인 중국반동군벌들과 반동교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그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에로 청년학생들을 불러일으키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민족주의자들의 그릇된 견해를 폭로비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허황한 주장과 그릇된 리론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으며 그들의 각종 《주의주장》의 반동적본질과 그것이 조선혁명발전에 끼치는 엄중한 후과와 해독성에 대하여 낱낱이 폭로비판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8(1929)년 가을 중국반동경찰에 체포되시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감옥안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실 생각을 무르익히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옥중투쟁을 벌리시던 지린(길림)감옥과 감방입니다.

제 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 준비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신데 대하여 그리고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5월초 지린(길림)감옥에서 나오신 후 약해지신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혁명활동을 힘차게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

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과 《ㅌ. ㄷ》의 강령을 시원으로 하여 그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구상하시고 무르익혀나가시였으며 그 과정에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뿌리로 하고있는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룬(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19(1930)년 6월 30일 카룬(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에 걸쳐 카룬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를 여시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로선, 선군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원리를 밝히시고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독립을 이룩하는것과 함께 봉건적제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것이며 조선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문제들인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카륜회의후 우리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빛나는 앞길을 환히 내다보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ㅌ. ㄷ》와 공청을 비롯한 여러 혁명조직을 통하여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키우시였습니다. 한편 광범한 군중을 깨우치고 조직에 묶어세워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준비에 토대하여 주체19(1930)년 7월 3일 카룬에서 첫 당조직을 뭇는 회의를 가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19(1930)년 7월 3일 주체형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를 무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첫 당조직의 결성을 선포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당조직성원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각지에 기층당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10월 1일 온성군 두루봉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되는 당조직을 결성하는 회의를 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19(1930)년 10월 1일 온성군 두루봉에서 당조직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국내당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 국내와 동만일대의 여러곳에서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핵심을 키우고 무기를 마련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때 대원수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은 무장을 갖추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7월 6일 구위수(고유수)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군결성을 선포하시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군성원들을 국내에로 파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바이(장백), 푸쑹(무송) 등 만저우(만주)의 각지와 국내 여러 지역에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들을 파견하시여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그쳐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군대오를 무어주신 구위수(고유수) 리쟈툰(리가툰)전경이며 그우의 인물사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인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공영, 계영춘, 김원우, 박근원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고 넓혀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농촌혁명화를 위하여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정치사업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농촌혁명화를 위하여 수수한 농민옷차림을 하시고 군중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총을 잡고 일제와 맞서싸울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총쏘는 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싸움법도 배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혁명군성원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지린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부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은 대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조선의 캄캄한 밤하늘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을 안아오는 새별이라는 뜻에서 그이의 존함을 한별동지라고 불렀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지어불렀습니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한별동지로 불러오

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존함을 어찌 새별에만 비기겠는가고 하면서 그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한결같이 바라는 마음에서 **김일성**동지로 다시 고쳐부르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보급하는 청년공산주의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하여 주체20(1931)년 5월 중순 옌지(연길)현 밍위에거우(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여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조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러 지방에 내보낸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싱룽(흥룡)촌을 비롯한 안투(안도)지구와 회령, 종성 등 륙읍일대에 나가시여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동만을 휩쓴 추수투쟁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핵심들을 더 많이 키워내시고 광범한 혁명군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단련시키시였으며 조중인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였습니다.

제 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유격근거지를 꾸리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0(1931)년 12월 옌지(연길)현 밍위에거우(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여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로작을 짚으며)

○ 도록에 모신 사진이 주체20(1931)년 12월 16일 옌지(연길)현 밍위에거우(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간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시면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할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먼저 무장대오를 꾸리는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군과 혁명조직들에서 단련육성된 성원들을 무장대오의 골간으로 준비시키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적위대와 로동자규찰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청년들과 추수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무장대오를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장대오를 무을수 있는 골간이 마련되자 주체21(1932)년 3월 안투(안도)현 샤오사(소사)하에서 18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먼저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시였습니다.

그후 동만 각 현들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장대오를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칭(왕청), 옌지, 허룽(화룡), 훈춘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도 소규모의 유격대들이 조직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으로 무장을 갖추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밑에 무기를 얻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장투쟁을 잘할수 있도록 대중을 혁명화하며 중국인반일부대와도 힘을 합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투현 샤오사하 무탸오(무주)툰 투치디엔(토기점)골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을 진행하시고 그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로작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에서 하신 연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성격과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직되였으며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혁명적인 무장력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은 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달성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첫 혁명무력이였습니다.

안투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력사, 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후 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몸소 부대를 이끄시고 남북만원정을 진행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으며 여러가지 민주개혁을 실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1(1932)년 5월말 안투현 샤오사하에서 시범적으로 유격구를 창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시였습니다.

그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들에 유격구를 내오시였고 적이 통치하고있지만 반일인민유격대가 실지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곳에는 반유격구를 꾸

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가야하(가야허)유격구 쓰수이핑(사수평)에서 시범적으로 왕칭제5구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집회를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인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쓰수이핑에서 처음으로 세운 인민혁명정부를 본보기로 하여 유격구에는 구인민혁명정부를, 마을마다에는 촌인민혁명정부를 조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토지를 분여받은 유격구인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에서 일제와 친일지주,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8시간로동제와 남녀평등권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단학교들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유격구병원들에서 모든 주민들이 무상치료를 받게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제공산당 파견원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주체22(1933)년 4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국제당 파

견원을 만나 담화하시면서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의 부당성과 인민혁명정부로선의 정당성에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국제당 파견원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전적으로 지지해나섰습니다.

제 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를 보위하고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며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유격구를 보위하고 반일부대들과 힘을 합쳐나가신데 대하여서와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2(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왕재산에 나오시여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여시고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로작을 짚으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왕재산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국내진출을 기념하여 왕재산에 세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방위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가 창설되자 일제는 그것을 없애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를 보위하기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며 유격구를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봄과 그해 가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진행된 샤오왕칭(소왕청)유격구역에 대한 일제의 《토벌》을 짓부시기 위한 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냈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지휘하신 샤오왕칭(소왕청)유격구역방위전투장면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고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3(1934)년 3월 9일 왕칭(왕청)현 마촌에서 반일인민유격대 군사정치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데 대하여》 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인 무력체계로 3,3제에 따라 사단, 련대, 중대, 소대, 분대들을 내오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는 원칙에서 편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편성하는데서 유격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하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

는 사업은 주체23(193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으로의 개편은 선군의 기치밑에 총대로 기어이 조국광복을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반일부대와 힘을 합쳐 싸우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공동전선을 이룩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광범한 중국인민의 반일력량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합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일부대와 담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반일부대사령과 담판을 하시여 반일련합전선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반일련합전선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하여 둥닝(동녕)현성전투와 루오쯔거우(라자구)전투를 지휘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해나가시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세차게 일어나는데 겁을 먹은 일제놈들은 《민생단》이란 간첩모략단체를 만들어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려고 꾀하였습니다.

일제놈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견실한 조선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민생단》의 딱지를 붙여 마구 잡아죽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조선혁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황와이(다홍왜)회의와 야오잉거우(요영구)회의에서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좌경적편향을 비판하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이 다황와이(다홍왜)회의와 야오잉거우(요영구)회의가 진행된 곳입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시 정세에 비추어 유격구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보다 넓은 지역에 내보내여 적극적으로 일제를 족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조선과 남북만 여러곳으로 내보내시는 한편 몸소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북만으로 가시기에 앞서 라오허이(로흑)산전투와 타이핑거우(태평구)전투를 벌리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라오허이(로흑)산전투에서 승리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치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또다시 북만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에 의하여 전복된 일제의 군용렬차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수많은 전투를 진행하시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제 1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아동단을 무으시고 소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아동단을 무어주시고 소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아동단을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때려부시는 어려운 때에도 어린이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시려고 유격구들에는 물론 적통치구역에까지 아동단을 조직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유격구아동단원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왕칭(왕청)에서 진행된 공청일군회의에서 아동단사업을 잘 지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연설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입니다.

아동단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소년들의 반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정치조직이였습니다.

아동단의 구호는 《전세계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였으며 상징으로서는 아동단기발, 붉은 넥타이, 경례, 곤봉이 있었습니다. 아동단은 중대(단), 소대(분단), 분대(반)로 나누어져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동단원

들을 조선혁명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키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어떠한 고난속에서도 실망과 비관이 없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어서어서 무럭무럭 커서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동단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동단원들의 잠자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마다에 아동단학교를 세워주시고 학습조건까지 다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자신께서는 귀틀집에서 홑옷을 입고계시면서도 아동단원들에게는 크고 더운 집에서 두툼한 솜옷을 입고 배고픈줄 모르고 지내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로부터 버림받고있던 마안산아동단원들에게

강반석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여 소중히 품고다니시던 뜻깊은 돈 20원으로 옷을 해입히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언제나 아동단원들을 부대와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간고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그들을 소년중대원으로,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소년중대원들을 간고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투사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아동단원들을 키워나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이 학습과 생활을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들을 혁명실천을 통하여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유격구아동단원들의 학습과 생활, 투쟁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속에서 억세게 자라난 아동단원들은 학습과 생활을 잘하였을뿐아니라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김금순의 장렬한 최후와 영웅

성에 대하여 소개한 출판물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항일의 소년영웅 김금순입니다.

9살밖에 안되는 항일의 소년영웅 김금순은 적들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사형당하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직의 비밀을 지켜 굴함없이 싸웠습니다.

○ 여기의 이 책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항일아동단과 아동단원들의 투쟁에 대하여 소개한 책들입니다.

제 1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을 더욱 높이 이끌어올릴 방침을 내놓으시고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데 대하여,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

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25(1936)년 2월 27일 난후터우(남호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에 난후터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내보내여 무장투쟁을 점차 우리 나라안으로 넓혀나가며 이를 위해 백두산을 중심으로 넓은 곳에 새로운 근거지를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며 당창건준비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난후터우회의가 있은 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둥강(동강)에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푸쑹(무송)현 둥강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난후터우회의에서 내놓으신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에는 조국광복회를 내오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구호문헌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국광복회10대강령내용에 대하여 나무에 쓴 구호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국내깊이에로 비밀근거지를 넓혀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근거지를 꾸리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여러 전투를 벌리시였으며 8월에는 푸쑹현성전투를 몸소 조직지휘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푸쑹(무송)현성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압록강연안으로 나오시여 수많은 전투를 벌려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수많은 전투를 승리에로 이끄

시는 한편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을 백두산지구에 파견하시였으며 주체25(1936)년 9월에는 몸소 주력부대성원들을 이끄시고 국내의 소백수골에 나오시여 밀영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도록에 모신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소백수골안에 사령부밀영인 백두산밀영이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본거지로,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수많은 위성밀영들을 건설하게 하시고 밀영주변지역 인민들속에 지하혁명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백두산주변의 북부조선일대와 시지엔다오(서간도)의 넓은 지대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그

것에 튼튼히 의거하여 국내깊이 들어가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을 대중적인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신 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시여 군사정치활동에 유리한 산림지대에 여러가지 형태의 비밀근거지들을 대대적으로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와 함께 당조직건설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들을 나라안의 넓은 지역에 파견하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으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시고 신파지구를 비롯한 국내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당조직들과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내오시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습니다. (도록에 모신 사진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6(1937)년 3월 시강(서강)회의에서 조국진군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전투를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주체26(1937)년 6월 3일 밤 일제놈들의 삼엄한 경비진을 뚫고 압록강을 건너 보천보가 바라보이는 곤장덕에 오르시였습니다.

6월 4일 밤 10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울리신 한방의 총소리를 신호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일제의 폭압기구와 통치기관들을 순식간에 습격소탕하고 보천보 일대를 해방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6(1937)년 6월 4일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올리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연설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그들을 승리에로 부르는 투쟁의 기치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보천보에서 얻어맞고 경찰과 군대를 긁어모아 달려드는 수많은 일제놈들을 커우위수이(구시)산과 지엔싼(간삼)봉에서 보기 좋게 족쳐버리도록 하심으로써 국내진공작전은 빛나는 승리로 끝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주체26(1937)년 11월 하순부터 다음해 3월 하순까지 마탕거우(마당거우)밀영에서 집중적인 동기군정학습을 조직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6(1937)년 11월 10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군정학습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습니다.

제 1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겹쌓인 난관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계속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을 헤치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난파이쯔(남패자)회의를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27(1938)년 11월 25일 난파이쯔(남패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당시 우리 혁명앞에는 일제놈들이 악랄하게 감행한

《토벌》, 검거, 투옥, 학살과 러하(열하)원정의 후과로 하여 매우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난국을 이겨내고 조선혁명을 계속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주체27(1938)년 11월 25일부터 10여일간에 걸쳐 난파이쯔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혁명을 계속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로 진출하며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활발히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7(1938)년 12월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난파이쯔를 떠나 압록강연안국경지대에로 나오시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시였습니다.

행군은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수십만의 적들과 싸우면서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운 행군이였

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전과정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내외원쑤들과 싸워 승리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키를 넘는 생눈길을 헤쳐나갈때는 대원들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주시였고 쉴참에는 젖은 신발을 우등불에 말려도 주시고 전령병이 권하는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원들은 더욱 힘과 용기를 내여 원쑤놈들을 족치면서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100일도 넘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내시고 주체28(1939)년 4월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여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베이다딩쯔(북대정자)회의가 진행된 곳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빛나는 승리로 끝낸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시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할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8(1939)년 5월 18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너 청봉에서 숙영하시였습니다.

19일에는 건창에서, 다음날에는 베개봉에서, 21일에는 삼지연에서 휴식한 후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행군하여 단숨에 무포에 이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경위중대와 8련대를 인솔하시고 신사동방향으로 진출하시여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홍단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5월 23일 몸소 대홍단벌에서 유인매복전술로 적들에 대한 섬멸전을 벌리시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고난의 행군과 무산지구전투를 보여주는 로정도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부대선

회작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부대선회작전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가운데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의 세찬 투쟁에 녹아나면서도 일제놈들은 몇십만의 대병력으로 백두산동북쪽의 산과 골짜기마다에 이리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진드기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족치기 위하여 대부대선회작전을 조직진행하시였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은 밀영을 중심으로 전개하던 종래의 유격전술과는 달리 대부대로 미리 지정된 비밀길을 따라 넓은 곳을 끊임없이 돌면서 갑자기 나타나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고 감쪽같이 사라지며 또 얻어맞은 놈들이 따라오면 유리한 곳으로 끌어당겨 놈들을 또 족치는 등 다양한 전법으로 적을 타격소멸하는 류동작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러한 뛰여난 류동작전에 의하여 일제놈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무리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제 1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을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맞이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샤오하얼바(소할바)령회의를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29(1940)년 8월 10일 둔화(돈화)현 샤오하얼바(소할바)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일제는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 등 파쑈놈들과 한짝이 되여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전반적정세가 복잡

하던 주체29(1940)년 8월에 샤오하얼바령에서 회의를 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정세는 우리들에게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때려눕히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선혁명에서 기본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29(1940)년 9월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임무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그리고 소부대와 소조들이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인 림시비밀근거지를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내각지에 소부대와 소조들을 파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에 따라 만저우(만주)의 넓은 지역과 경흥, 웅기(선봉), 라진, 무산 등 북부조선일대는 물론 국내종심깊이에 이르는 전국각지의 전략적요충지들에 많은 림시비밀근거지들이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 오른쪽의 지도는 1940년대 전반기 주요 국내혁명근거지분포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림시비밀근거지들을 찾으시여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을 료해하시고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와 정

치공작소조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백두산밀영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국내에 진출하시여 소부대활동을 조직령도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1(1942)년 6월 백두산밀영에 오시여 아드님을 품에 안으시고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장에서 탄생하신 아드님의 장래를 뜨겁게 축복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의 기상이 넘쳐나는 아드님의 얼굴을 이윽토록 들여다보시다가 김정숙어머님께 후대들을 잘 키워서 혁명의 대를 잇게 하자고 하시면서 백두산에서 높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후대들이 대를 이어 들고나가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앞두고 소부대활동을 강화하시는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창건준비를 완성하며 조국광복회조직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파괴된 조국광복회조직을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와 일본, 만저우의 넓은 곳에 파견하시고 몸소 백두산동북부와 북부조선의 여러곳을 다니시며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

을 축하하는 항일혁명투사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치렬한 싸움터에서 첫걸음마를 떼시였고 만사람의 기대와 축복속에서 성장하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백두산3대장군을 높이 칭송하여 나무에 쓴 구호문헌입니다.

제 1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령도하시여 항일혁명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마지막판가리싸움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빛

나는 승리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일제격멸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준비를 완성하시였습니다.

주체34(1945)년 5월 9일 파쑈도이췰란드의 패망은 그와 한짝이였던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변화되는 새로운 정세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주체34(1945)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의 모임에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문제를 토의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5월 1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의 총적목적과 력량편성, 련합작전문제 등 최후공격작전방향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6월초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최후결전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일제놈들과 마지막판가리싸움을 할 작전계획

을 세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주체34(1945)년 7월 3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발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세우신 최후공격작전계획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공격작전과 함께 전체 인민이 일어나 싸워 일제를 쓸어눕히고 조국을 해방하는것이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작전계획에 따라 부대의 전투서렬을 재편성하시고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로 중요도시들과 지구별책임자들을 임명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최후의 판가리싸움이 다가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군사훈련을 맹렬히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협동작전훈련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과

무장봉기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무장봉기에 떨쳐나설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무장봉기로 호응할것을 토의하는 조국해방단 성원들입니다.

조국해방단은 무장봉기조직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킬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삼고 평양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중서부일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들은 중부조선일대와 함경남북도, 남부조선일대의 여러 지방에서도 조직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9일 드디여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에로 넘어갔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소조들, 전민항쟁조직들과 함께 각 도들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적의 국경요새들을 돌파하고 경원, 경흥일대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들은 지상부대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웅기(선봉)에 상륙하여 청진일대로 진격하였습니다.

○ 도록아래 우측의 사진은 일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웅기(선봉)에 상륙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입니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의 다른 부대들은 일제관동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두만강대안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에 합세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세찬 공격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전민항쟁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황급히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이 패망당한 일제침략자들의 가련한 몰골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조국해방위업의 빛나는 실현은 선군의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집니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의의는 조국해방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선혁명을 앞으로 계속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였다는데 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의 기치, 주체의 기치밑에 승리하는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그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입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와 숭고한 혁명정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입니다.

제 1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여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된 조선이 나아가야 할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이 나아가야 할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긴긴세월 일제를 때려엎는 어려운 싸움의 나날에 쌓이고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부터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4(1945)년 8월 2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인민자신의 손

으로 부강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온 나라 여러곳에 보내시고 그들의 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갈림길에서 고향 만경대를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9일 로동계급을 먼저 만나 나라일을 의논하시려고 그처럼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에도 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강선으로 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9일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신 후 그들에게 공장을 일떠세울 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새 조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모든 조선인민이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 나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거듭 인사를 보내시고 새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국광복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새 조선을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자기의 국가를 세우고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건국사업을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다고 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

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김일성**장군 만세!》소리가 또다시 하늘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날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온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뜻깊은 모임들이 계속 열리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온 민족이 커다란 기쁨과 감격으로 열렬히 환영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첫 인사를 하시고서야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할머님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20년만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반겨맞은 만경대고향집에서는 20년동안이나 쌓이고쌓였던 이야기가 그칠줄 몰랐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개선을 기념하여 세운 개선문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주체34(1945)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조국개선도 끝없는 기쁨속에서 맞이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조국개선과 투쟁업적을 소개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제 1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그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그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시고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공산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방직후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하여 먼저 당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고있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몸소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당창건준비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항일혁명투사들을 여러 지방에 내보내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집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당창립대회를 여시고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밝히시면서 우리 당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만들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뭇고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신 후 당의 로선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면서 우리 당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5(1946)년 8월 29일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를 여시고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묶어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대중단체들을 광범히 조직하고 로동자들은 로동자조직에, 농민들은 농민조직에,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녀성들은 녀성조직에, 문화인들은 문화인조직에 망라시켜야 합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민주청년단체대표자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 기발아래 단결하라!》는 구호밑에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청년단체인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주체35(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무어주시고 민청단체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 농민, 녀성, 소년들의 조직들도 무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원들의 지성어린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6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소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나라 소년들의 혁명적인 대중조직인 조선소년단을 무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어주신 조선소년단 창립행사와 소년단원들의 경축시위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에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를 내오시였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 사회건설을 다그칠 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제 1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광복후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제반 민주개혁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하시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여 우리 식의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당장 전조선적인 정부를 세울수 없는 실정을 헤아리시고 북조선에 중앙주권기관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사업을 한데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2월 8일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협의회를 여시였습니다.

여기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북

조선중앙주권기관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11개조 당면과업과 《20개조정강》에서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 《20개조정강》의 친필원고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문제해결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여기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안남도 대동군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신데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고 일제와 지주놈들의 땅을 빼앗아 땅없는 농민들에게 거저 나누어주시였습니다.

또한 주체35(1946)년 8월 10일에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시여 일제와 그 앞잡이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철도, 체신, 은행, 산업과 문화기관들을 빼앗아 인민의 재산으로 만드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5(1946)년 8월 1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래의 도표는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에는 로동법령을, 주체35(1946)년 7월에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로동자, 사무원, 녀성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안겨주시였습니다.

또한 사법, 검찰, 교육 및 문화의 민주화를 실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하며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창덕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그리고 여기에 모신 사진은 주체36(1947)년 7월 4일 평양제2인민학교를 찾으시여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랜 지식인들을 교양개조하는것과 함께 새 민족간부를 키우기 위하여 주체35(1946)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우시였으며 수많은 대학, 전문학교를 련이어 내오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의 첫 대학 **김일성**종합대학과 삼흥중학교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1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35(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자연개조의 첫 사업으로서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주체35(1946)년 5월 21일 몸소 첫삽을 뜨시였으며 대중을 동원하시여 단 55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낳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문맹퇴치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주체38(1949)년 3월에 이르러 동방에서 처음으로 문맹을 가신 나라로 되였습니다.

도록에 인용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에서 보는것처럼 여러가지 민주개혁이 수행된 결과 공화국북반부에는 혁명적민주기지가 튼튼히 세워졌으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였습니다.

제 1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 첫 시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데 대하여, 정규화된 혁명군대와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우시고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첫 시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끝내신데 뒤이어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6(19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여러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증산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습니다.

도록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황해제철소(오늘의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증산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으며 농민들과 함께 모도 꽂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36(1947)년과 주체37(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주체38(1949)－주체39(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도 전반적으로 앞당겨 수행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열병식 주석단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양학원을 비롯한 여러 군사정치간부학교와 훈련소들을 세우시고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내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국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첫 병기공장이 세워지고 자체의 힘으로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생산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빈틈없는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2월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평양학원창설과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습니다.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1948년에 들어서면서 단독선거놀음을 벌려 괴뢰정권을 만들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37(1948)년 4월에 남북련석회의를 여시고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울데 대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히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평양시 쑥섬혁명사적지에 세운 통일전선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북총선거를 통해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 8월에 진행한 남북조선총선거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국기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37(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정부정강에서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며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과 남의 모든 통일애국력량을 하나의 주체적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그리고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공화국정부의 평화통일방안들을 거부하고 끝내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길로 나갔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쟁도발책동과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입니다.

제 1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로 당과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에 쳐들어온 미제원쑤놈들을 물리치고 남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한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을 준비해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38°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에 미친듯이 쳐들어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39(1950)년 6월 26일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9(1950)년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따라 수십만의 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탄원하였으며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전선원호에 떨쳐나섰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전선으로 탄원하는 청년들이며 아래의 사진은 전선원호를 결의하는 소년단모임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온 나라가 전시체제로 넘어가고 전당, 전민, 전군이 하나

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결속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반공격작전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따라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련속 타격전을 벌려 인천과 수원을 해방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서울을 해방하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인민군땅크병들입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반공격에 급해맞은 미제는 비행기, 함선을 비롯한 수많은 군대를 전쟁마당에 끌어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9(1950)년 7월 8일 방송연설에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미제침략자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할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전해방전투를 작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불비속을 헤치시고 몸소 전선사령부에 나가시여 대전해방작전을 령활하게 조직지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주도세밀한 작전계획과 지휘밑에 인민군부대들은 대전포위작전을 벌려 적들을 쓸어버리고 7월 20일 대전을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이 대전해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9(1950)년 8월초에 또다시 최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사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최전선에 나가시여 새로운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전선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인민군용사들은 전쟁이 개시된지 불과 한달반사이에 남반부땅의 90%이상,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인민군용사들의 락동강도하전투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략도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략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남반부인민들에게 새 제도, 새 생활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위한 광주군 언주면대표자회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남반부지역에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을 내오게 하시였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남반부인민들이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를 열렬히 환영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 사진은 전선으로 나가는 의용군부대들입니다.

제 2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선의 승리를 이룩하며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새로운 반공격전을 현명하게 이끄시고 혁명적규률을 세우신데 대하여, 적극적인 진지방어와 당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전시생산과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반공격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공격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군부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시는 한편 적들이 강점한 지역에 제2전선을 펼치고 적들에게 드센 불벼락을 안기도록 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인민군대는 불과 한달동안에 새로운 반공격에로 넘어갈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용감한 소년근위대 대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소년단원들도 적후에서 소년근위대를 무어 원쑤놈들과 용감히 싸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전쟁의 제3계단은…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적의 유생력량을 대량적으로 섬멸하면서 적들을 38선이남까지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1월 하순 모든 전선에서 결정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

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미제침략자들을 족치며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용사들을 고무격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총반공격으로 넘어간 아군련합부대들은 청천강부근과 장진호반에서 놈들을 쓸어버렸으며 동해안으로 진격하던 부대는 적들을 함흥지구에서 족쳤으며 적후에서 싸우던 부대들은 적들의 뒤통수에 불벼락을 안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39(1950)년 12월말에는 북반부의 모든 지역과 남반부의 일부 지역까지 해방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39(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전선과 후방을 튼튼히 다지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하여

당, 국가, 군사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규률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종파분자들이 끼쳐놓은 사대주의, 교조주의후과를 빨리 가시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산악전과 야간전을 적극 벌리며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후방을 복구정비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으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마음껏 배우고있는 원아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애국렬사유가족, 인민군대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돌봐주도록 하시였으며 부모잃은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곳에 애국렬사유자녀학원과 초등학원, 애육원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굶어죽고 얼어죽는 사람도, 거리를 헤매는 고아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인민군부대들로부터 크게 얻어맞은 적들은 1951년 6월에 이르러 제놈들이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38°선계선에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려 이미 차지한 계선을 튼튼히 지키면서 적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시간을 얻어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하고 후방을 공고히 함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것을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으로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갱도진지굴설작업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진지를 갱도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리기 위한 독창적인 갱도전법을 내놓으시였으며 여러가지 새 전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대담하게 적용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든든한 갱도진지에 의거하면서 적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1211고지방위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의 《추기공세》를 짓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0(1951)년 9월 하순 몸소 포연탄우속을 헤치시고 최전연의 고지에까지 오르시여 1211고지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안을 세

워주시였습니다.

적들은 1211고지를 돌파하려고 하루에도 3만～4만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부으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 영웅전사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웠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고지 1211고지를 피로써 지켜싸우고 있는 인민군용사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독창적인 전법과 탁월한 령군술,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1211고지를 빼앗고 우리의 후방길이 쳐들어오려던 적의 기도는 산산이 부서지고말았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들은 리수복영웅과 조군실영웅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시생산과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대동군 원화리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동군 원화리를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을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

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들은 전시무기생산과 식량증산투쟁에 떨쳐나선 군수공장과 농촌청년들입니다.

군수공장 청년들과 로동자들은 전선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기 위해 피대를 손으로 돌려가며 포탄을 깎았으며 수송전사들은 적의 폭격속에서도 전시수송을 보장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벌써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밀고나가시였으며 몸소 전후복구건설문제를 인민들과 의논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1(1952)년 6월 21일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 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 당세포총회에 참가하시여 한 녀성당원의 소박한 말속에서 우리 인민의 강의한 의지를 보시고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제 2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앞으로 결정적인 국면에 가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강화에 선차적관심을 돌리시고 인민군대안의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결과 모든 군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울 각오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모든 지휘관, 정치일군들의 군사정치적자질을 높이고 전투정치훈련을 실속있게 하며 무장장비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공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가운데 로작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집필하신 《인민군대를 강화하자》 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1(195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로작을 짚으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며 당사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회의후 전원회의 문헌토의사업을 통하여 당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박헌영, 리승엽간첩종파도당의 반당반혁명적행위가 낱낱이 폭로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짓부시기 위하여 주체42(1953)년 1월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여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해안방어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 한 련합부대를 찾으시여 적들을 조국땅에 한발자국도 들여놓아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에 고무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전에 떨쳐나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산산이 짓부셔버렸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반

타격전을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주체42(1953)년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의 기간에 적들에 대한 세차례의 강력한 타격전을 조직지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장병들은 351고지를 비롯한 전전선에서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습니다.

인민군부대들은 세차례의 집중적인 타격전에서 적의 막대한 유생력량을 소멸하고 340여㎢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수많은 군대와 무기들을 들이밀었으나 결국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 도록의 이 사진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전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조선전쟁에서 돌이킬수 없는 패배를 당한 미제는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말았습니다.

그리하여 3년간에 걸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 아래의 이 사진은 고지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여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고있는 인민군용사들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7월 28일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력사적인 승리를 거둔것은 전적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될수 있었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 사진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을 기념하여 세운 전승기념탑 중심주제상인 《승리》상입니다.

제 2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나라의 형편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7월 28일 방송연설에서 **《모든것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중간에 있는 구호를 짚으면서)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8월 3일 강선제강소 로동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선제강소(당시)를 비롯한 여러 공장과 농촌에 나가시여 파괴된 공장과 농촌경리를 일떠세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42(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에서 전후 경제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로작을 짚으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

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의 기본방향과 그 수행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을 세개의 기본단계로 나누어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과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이 조국의 방선을 튼튼히 지키면서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에 동원될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을 고무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복구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복구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온 나

라 인민들은 전후복구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 공장과 광산, 발전소들이 빨리 복구건설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도표는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주체43(1954)년부터 시작한 전후 3개년인민경제계획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2년 8개월만에 넘쳐 수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여 간부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립적국방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고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이 나날이 강화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4(1955)년 4월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4월테제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테제를 발표하시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전체 조선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4월테제를 발표하신 후 우리 인민을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4(1955)년 7월 25일 장강군 종포리농업협동조합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후시기를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의 가장 적당한 시기로 보시고 농민들을 협동화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농업협동화를 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단계를 설정해주시고 농업협동화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은 매우 순조롭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공업과 개인상

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 도록의 이 문헌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상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교조주의, 형식주의와 그 해독성을 분석하시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6(1957)년 10월 10일 벽동군 동주중학교 학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6(1957)년 가을 두메산골농민들의 생활을 보살피시기 위하여 수풍호의 배길로 동주리앞을 지나시다가 호수가에서 뛰놀던 학생들이 먼발치에서 부르는 만세소리를 들으시고 배머리를 돌리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제 2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시고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당 제3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을 밝히시고 종파의 오물을 쓸어버리신데 대하여서와 천리마운동을 창조하시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신데 대하여 그리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고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지도하시고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45(1956)년 4월 23일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밝히시고 5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펼쳐주시였습니다. (도록의 로작을 짚으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전후에 거둔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자주적조국통일과 당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 제3차대회결정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당 제3차대회가 있은 후 반당종파분자들은 당의 통일단결을 허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6(1957)년 8월 27일 강서군 대성리농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시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하시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결과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천리마운동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이 당을 반대해나선 어려운 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을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5(1956)년 12월 28일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이 강선과 김철의 로동계급의 혁신적성과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대원수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렸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운동의 첫 불길이 강선에서 높이 타올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8(1959)년 2월 또다시 강선에 나가시여 천리마운동을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시켜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8(1959)년 6월 5일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47(1958)년 8월에 농업협동화가 승리적으로 끝났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도시수공업자들과 상공업자들을 여러가지 협동경리에 들여보내여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선진적인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48(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축성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선제강소, 황해제철소, 룡성기계공장 그리고 기양과 덕천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고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혁신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부르심은 온 나라 근로자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큰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보람찬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로 내달려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5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도표는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당의 군대로 준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안에서 반종파투쟁을 심화시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대안의 당정치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는데서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의 로작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47(1958)년 2월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앞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면서 인민군대가 계승하여야 할 유일한 전통은 항일유격대의 전통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도서들을 수많이 출판하며 인민군대안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제 2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웅대한 과업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웅대한 과업을 내놓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데 대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여시고 웅대한 강령을 펼쳐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50(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0(1961)년 9월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7개

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과업, 당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회후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 전망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제1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증산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김책제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자료는 당 제4차대회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소개한 로동신문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49(1960)년 2월에 청산리

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50(1961)년 12월에는 대안전기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강서군 청산리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여기에 모신 사진은 주체50(1961)년 12월 6일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지도에 뒤이어 숙천군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시고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1(1962)년 12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주체51(1962)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여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

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도록가운데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인민군병사의 무장상태를 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2(1963)년 2월 몸소 최전연의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고 《일당백》의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자라나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며 군사진지를 요새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다그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튼튼히 다져나가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이며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녹아난 미국놈의 몰골과 그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3(1964)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로작을 짚으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 등을 명백히 밝히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할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농촌테제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은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여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민청 제5차대회 참가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3(1964)년 5월 민청 제5차대회에 참석하시여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고쳐주시고 사로청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제 2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워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5(1966)년 10월 당대표자회를 여시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55(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우의 첫번째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밝히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제시하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침들을 명확히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6(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구호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구호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르치심따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나갔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대오로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공업건설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그리고 경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룡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6(1967)년 6월 룡성기계공장을 몸소 찾으시여 로동계급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세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룡성에서 지펴주신 불길은 온 나라에 타번져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7(1968)년 4월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7(1968)년 4월에 열린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서 혈기왕성하고 용감한 청년들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선봉대가 되도록 고무추동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8(196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당 제5차대회를 맞으며 7개년계획을 완수할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주체58(1969)년 4월 16일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는 속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였으며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주체59(1970)년 10월 현재 공업생산을 전해에 비하여 131% 높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립적인 현대적공업

을 창설하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남들이 몇백년이 걸려야 할수 있는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수행하여 우리 나라를 힘있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웠습니다.

○ 도록아래의 도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꼬마계획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에 바친 《소년》호전기기관차와 《소년》호뜨락또르증정식장면입니다.

제 2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령을 펼쳐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신데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이어나가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새로운 투쟁과업들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59(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보고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59(1970)년 11월에 열린 당 제5차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한 투쟁과업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대회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며 당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였습니다.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시고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발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러 회의들에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내놓으시면서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사람들의 성분을 다시 평가하고 정확히 규정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맺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당과 혁명대오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1(1972)년 4월 15일 탄생 60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던 일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작성하시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1(1972)년 12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새 헌법의 기본내용과 특징, 새 헌법의 제정발포가 가지는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1(1972)년 1월과 9월에 발표하신 로작을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에서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바르게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념원에 따라 주체63(1974)년 2월에 열린 당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아버지대원수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신데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출판물입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63(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 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사로청 제6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0(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에서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제 27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벌리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시면서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3대기술혁명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공작기계생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0(1971)년 2월 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으시여 로동자들에게 공작기계 1만대를 생산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희천땅에 지펴주신 기술혁신의 불길은 온 나라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들끓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대기술혁명과업과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추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2(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중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원들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주체62(1973)년 2월 10일 공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생산현장에 들어가 과학기술적지도를 하는 3대혁명소조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습에서와 여러 로작들에서 3대혁명소조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고 그것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주체64(1975)년 11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기에 의하여 창조되였으며 모든 단위들에 급속히 확대되였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강령을 투쟁구호로 제기하고있는 운동입니다.

○ 도록아래의 가운데사진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들고 떨쳐나선 검덕의 광부들과 청산리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도록아래에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그리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이 적극 추진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청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한 신문보도자료들입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구호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2월에 제시하신 혁명적구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3(1974)년 2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

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다음해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당지도위원회를 꾸리고 그것을 잘 운영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하시였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63(1974)년 3월에는 전국공업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시면서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하여 5개전선인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김책제철소확장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김책제철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시여 몸소 걸린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릴것을 호소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로 만든 모내는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우월한 주체농법을 창조하시여 농업생산에 구현하도록 하시는 한편 새로 만든 모내는기계를 보아주시면서 농사를 보다 헐하게 잘 짓도록 농민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6개년계획은 빛나게 수행되였습니다.

제 28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66(1977)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6(1977)년 12월에 열린 이 회의에서 하신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가운데 로작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혁명에서 기본은 주권문제이며 인민정권은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관료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6(1977)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5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과 제2차 7개년계획의 전망목표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과 함께 인민경제 부문별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구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7(1978)년 12월에 내놓으신 혁명적구호입니다.

이 구호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정신, 기본요구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끝까지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9(1980)년 9월 10일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여기에 모신 이 사진은 주체68(1979)년 2월 20일 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다그쳐지고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 개학날 대동문인민학교(오늘의 **김성주**소학교)를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6(1977)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이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발표하신 교육테제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내

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관철된 결과 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며 수많은 대학과 전문학교들이 새로 나옴으로써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더 잘 키워낼수 있게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7(1978)년 10월 1일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있는 대학생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과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창조성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드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 도록아래의 가운데사진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활짝 꽃핀 주체예술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보건사업을 개선하며 사회주의적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체육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집단체조를 통하여 체력을 단련해나가는 학생소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고있는 청소년학생들입니다.

제 29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새로운 투쟁강령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점령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새로운 투쟁강령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69(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당 제5차대회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한 보고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과 10대시정방침,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대

한 세계 여러 나라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로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이 구호 《모두다 〈80년대속도〉 창조에로!》를 받들고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의 근로자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71(1982)년 10월에 전국청년열성자회의를, 11월에는 80년대속도창조에 떨쳐나선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 땅을 찾아내며 서해갑문과 태천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4대자연개조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3(1984)년 9월 14일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철 및 금속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0(1981)년 6월 2일 금속공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0(1981)년 6월에는 금속공업부문 일군협의회를 그리고 주체71(1982)년 8월에는 함흥에서 중요회의를 여시고 강철과 금속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속공장들과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채취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를 다그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수산물고지와 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도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속에서 제2차 7개년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도표가 제2차 7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된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로 개건확장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며 항일혁명투사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1(1982)년 10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개건확장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지시문을 내려보내여 혁명렬사릉 개건확장공사를 전당,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74(1985)년 10월 대성산혁명렬사릉이 훌륭히 개건확장되였습니다.

○ 도록에 있는 로작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75(1986)년 5월에 발표하신 로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우리 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하시였습니다.

제 30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사업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발표하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주체75(1986)년 12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5(1986)년 12월 최고

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의 이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원칙과 방도를 내외에 엄숙히 밝히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된 무계급사회이며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라는것과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상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

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입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이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4(1985)년 9월 19일 서해갑문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서해갑문건설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갑문건설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속에 20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서해갑문이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5(1986)년 6월 24일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서해갑문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갑문의 여러 시설물들을 돌아보시고 갑문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치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7(1988)년 2월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제기하시고 몸소 진두지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특히 기간공업을 더욱 완비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그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는 한편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수리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1(1992)년 9월 16일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장천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을 찾으시여 영농사업을 과학화하여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늘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새로 만든 신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여기에 모신 사진은 평양시건설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먹는문제 해결에 선차적힘을 넣으시면서 경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전환

을 가져오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한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에서는 현대적거리와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들에도 문화적이며 현대적인 살림집이 많이 건설되여 그 면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건설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원칙과 투쟁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79(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원칙과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져야 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하며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사회주의의 원칙과 사회주의적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이 더욱 완성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제 31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을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워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시

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82(1993)년 2월 18일 사로청 제8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후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청소년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과 우리 혁명의 전도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로청대회를 비롯한 기념행사들을 마련해주시고 몸소 회의에 나오시여 청년조직과 청소년들이 사업과 활동,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로작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사로청 제8차대회에 보내신 서한이며 로작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

시키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년사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입니다.

아버지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주신 가르치심은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해나가는데서 교과서로, 지침으로 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청년일군들을 따뜻이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동맹과 소년단이 나아갈 옳바른 방침과 투쟁구호를 내놓으시고 청년동맹, 소년단명절때마다 몸소 나오시여 청년동맹원들과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생활,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어려운 나날 먼저 학교부터 세워주시였고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학습을 계속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지어주시였습니다. 전후에는 초등의무교육제, 중등의무교육제, 9년제기술의무교육제, 그후에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여 청소년들이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희망을 꽃피울수 있게 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수많은 학교를 찾으시여 청소년들의 학습정형을 알아보시고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배우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사회와 집단과 동무를 사랑할줄 아는 역군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키크기운동과 등산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체육활동을 벌리며 한가지 이상의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제일 좋은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과외교양의 거점이며 지덕체교양의 본보기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경치좋은 곳에 훌륭히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입니다.

○ 도록에 있는 구호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제정하여주신 구호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제일 좋은 곳에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세워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학생소년들의 활동과 야영생들의 생활, 먹는문제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학생옷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첫 비날론제품을 보아주시면서도 먼저 아이들의 교복부터 만들자고 당부하시였으며 새옷과 신발, 책가방과 학용품을 다 마련해주시고도 먼 산골학교를 찾으시여 교복의 색갈과 무늬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학생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의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마다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시고 분에 넘치게도 높은 치하를 주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사랑의 선물까지 가득히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남녘땅과 일본땅에 있는 청소

년들에게도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재일조선청소년들을 위하여 일본땅 이르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주시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조국땅을 밟아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조국으로 부르시여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고 혁명전적지와 명승지, 공장, 농촌을 참관하도록 배려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린 재일조선청소년들은 일본땅에서도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제 32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81(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 조선인민군창건 50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시였습니다.(도록의 로작을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날로 로골화되는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이를 위해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특히 인민군대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1월 1일 인민군대앞에 새로운 충실성의 구호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를 제시하시고 이 혁명적구호가 군인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도록 하시였습니다. (도록우에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4(1985)년 9월에 열린 조선인민군 지휘관 및 정치일군대회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

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안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결과 모든 군인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굴함없이 싸우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육탄용사, 자폭용사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2(1983)년 4월 25일 군사전투정치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군인들을 높이 치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을 주체전법으로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6(1987)년 2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실전훈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각 부대들에서 실전훈련장을 만들어놓고 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며 가운데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구분대 전술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여러 군부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군사훈련정형을 보아주시고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고무해주시였습니다.

한편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며 조선사람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위력하고 질좋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결과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전법과 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원만히 갖춘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인민군대의 군사적 위력은 한층더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현대적기술장비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열병대오와 실전의 분위기에서 전투훈련을 벌리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 군인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백두산총대로 완성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군직부터 넘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82(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공화국원수로 높이 모시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데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장군님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자신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1(1992)년부터 주체82(1993)년사이에만도 10여차례에 걸쳐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대회를 비롯하여 부문별 대회들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전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잘 받들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대를 강화하는데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로작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0(1991)년에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사관장대회를, 주체81(1992)년에는 중대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중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82(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당의 국방공업중시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인민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고 인민의 생

명재산을 적극 보호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전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원호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지고 우리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대적과도 싸워이길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 왼쪽의 이 사진은 일당백의 위력을 시위하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며 오른쪽의 이 사진은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의 열병대오입니다.

제 33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히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1(1972)년 5월 3일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62(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2(1973)년 6월 23일에 하신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서 조국통일5대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 떨쳐나섰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가 내놓은 모든 조국통일방안들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파쑈폭압을 강화하고 침략전쟁준비에 더욱 미쳐날뛰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원쑤들의 책동에 맞서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습니다.

특히 주체69(1980)년 5월 광주인민들의 대중적인민봉기는 남조선의 파쑈통치지반을 크게 흔들어놓고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 도록아래 가운데사진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정세를 료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여러번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갈라져 40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사이에 적십자예술단 교환과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이 실현되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0(1991)년 8월에 발표하신 로작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5개방침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북남고위급회담과 여러 갈래의 대화와 행사들이 벌어지고 체육에서 유일팀이 구성되여 민족의 단합된 힘을 온 세상에 시위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여러차례에 걸쳐 성대히 열렸으며 범민련이 결성되여 조국통일의 더욱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특히 주체81(1992)년 2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이미 채택된 합의서와 공동선언의 발효가 온 세상에 공포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북남합의서와 공동선언에 대한 신문보도자료입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에 열린 이 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을 잊

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낼 구호물자 견본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3(1984)년 9월 큰물피해를 입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쌀 5만석과 세멘트 10만t, 천 50만m, 많은 량의 의약품을 보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의 《전대협》 대표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8(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전대협》 대표를 만나주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구호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대에 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천명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해외교포들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속에서도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조선인민들속에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습니다.

제 34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해서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대원수님을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끝없이 따르고있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주체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며 주되는 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세력이라고 하시면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사이의 단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는 구호밑에 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할것을 호소하시였습니다.(도록가운데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이 구호에는 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한 세계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원칙이 집약적으로 명시되여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강

화하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이전 쏘련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하시는 한편 사회주의나라 지도간부들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시여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이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반제자주화운동인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시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이 로작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주체64(1975)년 12월에 발표하신 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로작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이 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수많은 쁠럭불가담나라 국가수반들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여 친선과 협조,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여러 분야에 걸쳐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국제회

의들을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며 사심없는 원조와 협조를 주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0(1981)년 8월 31일 동서아프리카나라 농업부장협의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반제자주, 평화친선을 위한 국제회의들과 축전, 정치행사들의 성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전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1(1992)년 4월 평양에서는 사회주의재건의 대헌장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발표되게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이 사진이 평양선언에 대하여 소개한 신

문보도자료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지역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20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끝없이 흠모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 도록에 있는 이 사진은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와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장면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연구조직들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조직되고 연구토론회가 널리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출판물들이 세계적으로 수많이 발행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76(1987)년 4월 15일 우리 나라를 찾아온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인류해방의 구성》, 《20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진보적 인민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대륙과 대양을 건너 우리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만나뵙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면서 대원수님께 지성어린 선물을 삼가 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169개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진보적인민들,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로부터 16만 5 920여점의 선물을 받으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의 사진은 세계5대륙에서 보내온 귀중한 선물들이 진렬되여있는 국제친선전람관입니다.

제 35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서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혁명활동을 벌리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특히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가유자녀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사상과 령도, 풍모, 업적의 위대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이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81(1992)년 2월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친히 비준해주시였으며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장군님을 칭송하여 불멸의 송시를 몸소 쓰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으며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 도록가운데 모신 사진은 탄생 80돐을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

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에 몸이 몹시 불편하시여 치료를 받으셔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조국의 휘황한 앞날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쉬임없이 일하시였습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도록에 모신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초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여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19일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 몸소 온천군 금당협동농장과 평양시 대성구역의 어느 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사를 잘 지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그해 농사에서 풍작을 가져오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4월 25일에는 어느 한 공군부대를 찾

으시여 조선인민군창건 62돐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의 전투훈련모습도 보아주시였으며 군무생활형편에 대해서도 다심한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회담을 앞두고 수십차례에 걸치는 간곡한 가르치심과 10여건의 친필교시를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북남최고위급회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론의하시였으며 다음날에는 회담과 관련한 중대한 문건을 한장한장 번지시며 완성하시고 력사적인 문건에 《**김일성** 1994. 7. 7.》라는 친필을 남기시였습니다.

이 력사적인 문건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훈으로 되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남기신 친필과 판문점에 세운 친필비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17일 전 미국대통령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미제는 우리와의 핵대결전에서 계속 수세에 빠져들자 1994년 6월에 전 미국대통령 카터를 우리 나라에 보내여 조미회담을 다시 열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미회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미제의 핵소동을 짓부시기 위해 오랜 시간 카터를 만나주시였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크나큰 심혈에 의하여 조미회담이 다시 열리고 우리의 의도에 맞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해 6월 중순부터 약 보름사이에만도 18차례 외국대표단과 개별인사들을 접견해주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하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회고록을 집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집필하신 회고록과 그 집필요강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들, 후대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잘 받들라고 거듭 간곡히 이르시였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6월 7일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의 축하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축하문에서 전체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주체83(1994)년 5월 5일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가유자녀들, 해외연고자들까지 만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모시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데 대하여 당부하시였습니다.

특히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모시는데서 모범이 되며 후대들도 장군님의 령도를 잘 받들고 혁명의 대를 끗끗이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참말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제 36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비록 세상을 떠나시였으나 우리 인민들과 온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전체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이 아버지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당한 가장 큰 슬픔이였고 돌이킬수 없는 최대의 상실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8일 급병으로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

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가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서거는 순직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의 슬픔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온 나라는 울음바다,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으며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며 몸부림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할것없이 온 나라 인민모두가 크나큰 슬픔에 잠겨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상제가 되여 낮에 밤을 이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호상을 섰고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대원수님을 추모하였습니다.

애도기간인 7월 8일부터 20일까지만도 연 2억 1천 2백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군인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여 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7월 1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영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였습니다.

100여리 연도에 200만의 수도시민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바래워드리며 가슴을 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20일에는 **김일성**광장에서 중앙추도대회가 엄숙히 진행되였습니다.

○ 도록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적들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조의행사를 널리 조직하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지어 감방안에서도 애도단식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재일조선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가장 비통한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는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달려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령전과 동상을 찾아 화환과 꽃다발을 드리며 조국인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도록가운데 있는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잃은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대원수님의 령전과 동상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 외국의 벗들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였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온 세계가 슬픔과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며 대원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여 애도의 날, 애도기간을 정하고 조기를 띄웠으며 세계 166개 나라에서 3 480여건의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와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현직, 전직 대통령들, 정부수반들, 고위정객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도 애도의 뜻을 표시했고 유엔청사본부에는 조기를 띄웠습니다.

애도기간 세계 120여개 나라에서 700여개 출판물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추모하여 특집을 발간하고 2백여개의 통신, 방송이 연 2천 2백여회에 걸쳐 특별방송으로 대원수님의 업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얼마나 흠모하고 신뢰해왔으며 대원수님께서 지니신 국제적권위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합니다.

○ 도록우에 모신 사진은 언제나 우리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영생하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숭엄하게 꾸리고 아버지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였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이고 주체의 최고성지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년호를 제정하고 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신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결의모임을 가지는 소년단원들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훌륭히 실현하시여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게 하

고 대원수님의 사상과 혁명업적이 대를 이어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본받아 아버지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입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며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 도록아래에 있는 사진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실것을 맹세다지는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학생소년들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자!》

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앞날의 혁명인재,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준비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빛내이며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합니다. (도록중간에 있는 구호를 가리키면서)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
도 록 해 설
(중학교 소년단원용)
(재 판)

편 집 송혜경 장 정 한명신
편 성 인래선 교 정 오향선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2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2월 15일

ㄱ－15483ㄴ 값 20원